수성못 주변 상동지석묘의 발굴당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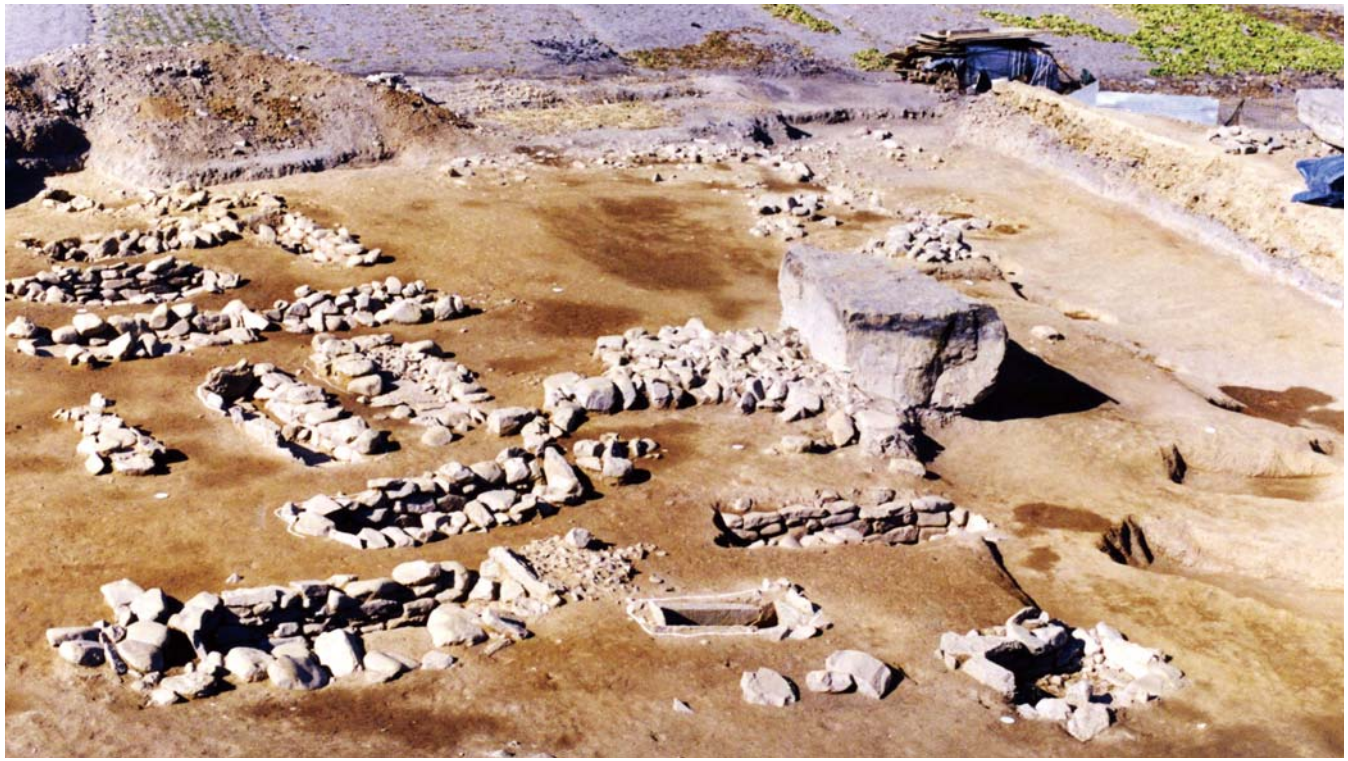
청동기 시대 취락의 흔적이자 공동체의 증거
대구 인류 역사의 명백한 이력 '상동지석묘'

#1. 대구 역사의 또 다른 기록

먼 옛날, 대구는 거대한 호수였다. 거기에 퇴적물이 쌓였고 굳어져 퇴적암 분지가 되었다. 대구 분지의 탄생이었다. 이어 약 7천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해 앞산이 생겨났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대략 5천 년 전 대구지역에 최초로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했다. 수성못 인근 수성구 상동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가 그 증거다. 그 후 청동기시대에 접어들면서 취락이 형성되었고, 사회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수성구 상동은 대구분지의 남쪽 경계를 이루는 팔조령 주변의 산지로부터 발원하는 신천이 대구분지로 유입되는 구역이다. 풍토는 온후했을 것이고 먹거리는 풍부했을 것이다.

이는 1998년 본격적으로 발굴된 '상동지석묘군'이 확실한 증거다. 지석묘, 즉 고인돌은 2천년 전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무덤이다. 그것은 정착의 흔적이고 공동체의 증거이고 더 나아가 그곳이 풍요로운 땅이었음을 말해



상동지석묘는 1990년 처음 발견된 후 1998년 본격적으로 발굴됐다. 수성들판이 택지로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십기의 고인돌이 남북 1㎞에 걸쳐 줄지어 있었다고 한다.

준다. 고인돌은 너무 오래되어 기록될 수 없었던 역사의 증언인 것이다.

#2. 1998년 본격 발굴 조사…30기의 묘실(무덤방) 발견

상동지석묘군은 1990년 경북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 의해 발견되었다. 지석묘는 수성들과 법이산이 접하는 곳, 신천의 동안에 하천의 범람으로 만들어진 자연제방 위에 있었다. 현재 수성랜드 주차장 인근의 후미진 곳(상동 501번지)이다.

대구시가 펴낸 '대구의 향기'에 따르면 수성들판이 택지로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십기의 고인돌이 남북 1㎞에 걸쳐 줄지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상동 지석묘군에서 출토된 4기의 고인돌은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옮겨져 있다.

본격적인 발굴 조사는 1998년 국립 대구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1990년 조사에서는 4기의 상석(덮개돌)이 서로 2~5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었으나, 1998년에는 이동되어 한 곳에 모여 있는 상태였다. 상석의 원위치를 알 수 없어 상석을 중심으로 15m×15m을 발굴 구역으로 상정, 그 지하를 조심스럽게 파내려갔다. 그 결과 약 30기의 묘실(무덤방)을 발견, 원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지하의 무덤들은 가장 동쪽에 장축이 남북 방향인 무덤들(1~5호)이 모여 열을 이루고, 그 서쪽에 장축이 동서방향인 무덤들(6~13호)이 모여 열을 이루고 있었다. 또 그 서쪽에 장축이 남북방향인 무덤들(14~30호)이 모여 열을 이루는 식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묘실은 평면이 장방형이었고, 대개 길이는 2m, 폭은 40㎝, 벽고는 30㎝ 정도의 규모였다. 지하식 돌덧널무덤(석곽묘)이 주를 이뤘고, 일부 판돌을 사용하여 축조한 지하식 돌널무덤(석관묘)의 구조도 있었다. 바닥은 납작한 강돌을 바닥 전면에 깐 것, 징검다리 식으로 깐 것, 납작한 강돌과 자갈을 혼합하여 깐 것, 자갈만을 깐 것 등으로 구분되었다.

1호 돌덧널무덤에서는 서쪽의 긴 벽을 이루는 돌의 바깥 면에 열을 받아

수성못 서편 수성랜드 부근에 있는 현재의 상동지석묘.

생긴 균열이 있었다. 이는 축조 시에 특별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4, 5, 6호에서는 삼국시대의 무덤 형식 가운데 하나인 앞트기식(횡구식) 구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6호 돌덧널무덤의 바닥에서 늦은 형식으로 생각되는 슴베있는간돌검(유경식마제석검)과 슴베있는간돌화살촉(유경식마제석촉) 3점, 11호에서는 자루달린간돌검(유병식마제석검) 1점, 18호에서는 슴베있는간돌화살촉, 흙으로 만든 그물추(토제어망추) 1점이 출토되었다.

#3. 그저 바위처럼 보이지만 2천년전 인류의 이력

현재는 상석 4개가 임의로 배치되어 있을 뿐, 고인돌들은 고인돌이 아닌 것처럼 서있다. 안내판이 없었다면 그저 바위로 보였을 것이다. 쉽게 치우기에는 크고, 그다지 생활에 방해되지는 않으니 그저 놓아둔 것 같은 바위. 누군가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어놀던 바위, 누군가는 걸터앉아 다리쉼을 하거나 하늘 푸른 날 한잠을 청했을지도 모를, 그런 바위. 이리 생각하면 가깝고 친근하고, 저리 생각하면 멀고 아득하다.

그러나 이곳은 고대인의 묘지, 2천 년 전에도 사람이 살고 죽고 애도하고 기억했다는 명백한 이력이다. 우리의 인식을 저 먼 시·공간으로 확장시켜주는 문이다. 상동 지석묘군은 2006년 4월20일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되었다.

그밖의 수성구 고인돌

◆ **수성구 상동 72번지 정화우방팔레스 아파트 서편 고인돌무덤**

이곳에 있는 고인돌유적은 옛 정화여중·고 자리에 있던 것들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101동과 102동 사이 1층 주차장 서편으로 옮겨진 것이다. 고인돌 6기가 돌널·돌덧널무덤 사이에 661㎡(200평) 정도 소공원에 분포돼 있다.

대구시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안내판의 내용이 상동 고인돌무덤과 달리 꼼꼼하게 기록돼 있고, 발굴현장도 두꺼운 유리판 속에 잘 보관돼 있다. 대단지 아파트 귀퉁이에 고인돌공원이 있어 생경한 느낌이 들지만, 고대인의 무덤이 주민쉼터로 잘 조성돼 현대인과 조화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수성구 사월동 욱수천로 133번지(시지2차 사월보성타운내) 고인돌무덤**

수성구 고산·시지·매호·사월동 일대는 욱수천과 매호천, 남천 양안에 고인돌무덤이 군집하고 있다. 이 중 욱수천에 인접한 사월동에는 모두 10기의 고인돌이 남아있다. 현재 사월보성타운내 아파트정원 담장 옆에 너비 1~2.5m 내외의 고인돌 4기가 남아있다. 대구시기념물 제9호로 과거 '칠성바위'라 불린 것으로 보아 7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수성구 매호동 843-3·844·836·809번지 고인돌무덤**

상동 정화우방팔레스 서편 고인돌.

대구~경산 달구벌대로 국도변 매호동 일대 나대지에 고인돌무덤 6기가 분포하고 있고 809번지 밭 일대에 4기가 흩어져 분포하고 있다. 이곳은 원래 서성들이라 불리는 평야였으나 지금은 두레타운, 하나타운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주택으로 바뀌었다. 1992년 개발에 앞서 영남대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했다.